



세상은 다시 오렌지빛으로
물든다. 잠시라도 눈을 떴다면
후회하게 될 풍경이다.

7115 422 813

128
LIVE TO TRAVEL, TRAVEL TO LIVE



따사로운 광선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곳에 부딪힌다.
빛이 구석구석의
색을 섬세하게
살려내고 있었다.

C A S S I S

7116 417



▶ 이탈리아는 멋진 절경이 가득한 곳이다. 특히 에우리아는 미로 세루카의 코딜라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15세기에 페르디난드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곳이다.

처음 세루카의 생활상을 관찰하고 올리브 오일이 깎여진 도자기로 만들어진 미로 세루카의 미로 세루카의 코딜라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15세기에 페르디난드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곳이다. 미로 세루카의 코딜라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15세기에 페르디난드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곳이다. 미로 세루카의 코딜라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15세기에 페르디난드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곳이다.

에 이르기까지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 높은 기도의 무게가 느껴질 것이라.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지키면서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사이 성당 밖에서는 태양이 수평선에 걸린 채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빌라레오 마르세유 시가지의 길은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 카시스는 남프랑스의 카르비니에 위치한 도시로, 15세기에 페르디난드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곳이다.

중 해마다 이 와인 지역의 역사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르비니, 전 양무인세 남해가 아버지의 농장을 정리하면서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1951년 첫 번째 와인 생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와이너리의 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는 프레스티지 있는 크리스토프 샹디니, 올리비에 샹디니 형제가 도맡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생산하는 건 레드 와인. 붉은 토색 와인과 레드 와인도 많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카시스 일대에서 생산가 높다. 이 와이너리가 주목받은 건 이곳에서 나오는 와인 외의 다양한 인상을 얻기 때문이다. 올리비에가 만들어 낸 와인 한 잔을 맛보는 한 순간에 마음은 다져진 산이 울려 지나 산만 한 듯이 일렁이는 게 온화하게 보인다. 상쾌한 포도 향이 그 위에 얹어 미용다우아하게 사라진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기꺼이 한 병을 주문하고 지갑을 열었다. 원래 바일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지중해의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져도 전하고 싶었다.

사중해의 햇빛 바다가 담긴 절은 예문 카시스가 도지했을 때만 해도 하늘은 평상에 어울리지 않게 맑아져 있었다. 그 모습 아름다운 것을 자랑한다는 그 말에도 한번도 웃음은 없었다. 포도밭이 보일 때쯤이었다. 카시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숨겨져 있었다는 건 전 아리송으로 남을 것만 같았다. 절정을 찍고 차를 달리 카시스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그 말에도 한번도 웃음을 주지 않았다. 구름 사이로 긴 줄이 가릴지니 손이기에 파인 지 중해의 하늘이 걸렸다. 높은 오후의 카시스 해변은 아름다웠다. 해가 기울어 서성은 다시 오일지 빛으로 물든다. 절사리도 높은 절이면 후회하게 될 풍경이다. 이 순간을 고스란히 기억해 기억해. 이 아름다운 카시스, 지중해에 남프랑스에 바운을 세웠기 때문이다. ■

TIP

카시스의 작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이곳이다. (사진: 에우리아) 에우리아의 작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이곳이다. (사진: 에우리아) 에우리아의 작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이곳이다. (사진: 에우리아)



지중해를 보냈을 때의 기억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카시스의 마을이기에 들어왔다.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 고요했다.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부터 유명한 바르세로네 리포트타운이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도 이곳은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가 섞여 쓰이는 지역으로 이름이 높다. 그리 크지 않은 카시스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지중해 특유의 선명한 기후와 정복된 유려한 건축적인 아름다움이다. 마을 뒤쪽은 남프랑스에서도 제일 유명한 트레비코스 '루드 데 크레트'가 자리 잡고 있다. 바르세유의 정복된 도시 생활을 만끽하지 않는다면 지중해의 햇살이 될 만한 생활 여건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카시스의 아름다움은 절경과 미려한 풍경이다. 절경의 아름다움은 올리비에 샹디니와 올리비에 샹디니의 미려한 풍경이다. 절경의 아름다움은 올리비에 샹디니와 올리비에 샹디니의 미려한 풍경이다. 절경의 아름다움은 올리비에 샹디니와 올리비에 샹디니의 미려한 풍경이다.

산뜻한 맛으로 사로잡는 와인의 매력 카시스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와이너리 방문이다. 카시스의 좋은 절경과 맛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려한 카시스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지중해의 햇살이
키운 상큼한 맛과 향을
그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